



남자 간호 대학생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주관적 구조

두 현 정¹⁾ · 김 윤 숙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는 남녀의 구분의 차별적인 경계가 점점 사라지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남성 직업 혹은 여성 직업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이 줄어들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사고와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르게 되는 사회적 배경과 함께 세계적으로 건강증진을 강조하는 건강개념의 변화에 따라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간호직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직종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실제 대부분의 여성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고 학과의 교육 환경 역시 여성 중심적인 간호학 분야(Williams & Bednash, 2001; 조경자, 이현숙, 2004)에도 남성들이 직업적으로 간호 분야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한국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동향으로 간호직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화에 따른 파워를 추구하려는 전통적인 남성관에 기인하고 있다(MacDougall, 1997; Boughn, 2001).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자 간호대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간호의 전문화 다양성(diversity)이 요구되는 간호 영역에 필수조건인 자연스러운 변화지만(Sullivan, 2002), 많은 연구에서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지원하는 남자 간호대학생일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하다고 나타났다(Avery, 2001; Burt, 1998; Gomez, 1994;

Makintosh, 1997; Poter-O'Grady, 1995; Simpkin, 1998; Sullivan, 2000). 이는 여학생 중심의 간호 교육으로 인해 남학생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배제된 교육환경(Auster, 1979; Schoenmaker & Radoservich, 1976)과, 여성 정형화 경향이 두드러져 남자 간호 대학생들은 부인과 병동 등은 실습을 제외시키는 교육환경의 문제점도 대두되어(Turnipseed, 1986), 성역할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Haywood, 1994; 최선주, 2002; 이동재, 2004). 간호학을 선택한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소수집단이라는 특성과 기존의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안정성, 전문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다른 직장에서 느낄 수 없는 정서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간호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Mason, 1991; 이동재, 2004).

최근에, 남자 간호사들이 간호직을 선택한 동기와 의사들이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Sweet, 1995), 남자 간호사의 간호직 내에서의 특권과 이득(Williams, 1995), 남자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성정체감(이동재, 2004), 남자간호대학생의 학과적응 경험(이정섭 등, 2005), 남자고등학생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이재형, 1996), 남자 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손행미, 고문희, 김춘미, 문진하, 이명선, 2003) 등의 남자 간호사나 간호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남자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적인 간호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양성을 모두 고루 갖춘 모습이 이상적인 간호사 이미지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Minnigerode, Kayser-Jones & Garcia, 1978; 이동재, 2004).

주요어 : 간호사, 성격, 주관성 연구

1) 진주보건대 간호과 강사(교신 저자 E-mail: hjdoo77@hotmail.com)

2) 건국대학교 병원 QI팀

투고일: 2008년 7월 4일 심사완료일 2008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2008년 10월 30일

간호 분야의 남성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을 없애고 전문적인 분야로서 사회적 직업적인 권력을 가지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간호 분야를 지원하는 남학생들이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이유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적 가치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남자 간호 대학생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간호계에 남자 간호사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간호 교육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남자 간호 대학생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표집 방법

● Q-표본의 구성

남자 간호 대학생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Q표본은 남자 간

호 학생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직업 가치관에 관한 진술문이다. 김윤숙과 김분한(2005)의 간호대학생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주관성 연구를 통해 얻은 진술문 28개중 남학생에게 부적합 항목 1개를 제외한 27개의 진술문과 연구자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1개의 진술을 포함한 최종 28개의 Q표본 진술문을 선정하였다<Table 1>.

● P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진주시 소재 일개 전문대학교 남자 간호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년과 가족 내 순위를 다양하게 선택한 이유는 학년과 가족 내 순위의 차이에서 주관적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자료 수집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구하였고, 익명성의 보장과 설문 및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 Q-분류과정과 방법

대상자에게 Q-진술문을 읽게 한 후 의문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의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먼저 completed 여부, 학년, 종교, 가

<Table 1> Q-Statement

1	I am self-disciplined and creative. Given proper responsibility, I can enjoy what I do.
2	Career prospects are important.
3	My input/output ratio should be same as that of others; otherwise it is unfair.
4	I prefer a well-paid job.
5	I would stand any unfair practice in job allocation and promotion to retain my job.
6	Honestly, I don't want to work nor take responsibility.
7	I am conscious of social status of an occupation.
8	I would devote a lifetime to my job.
9	As a member of an organization, I want to secure a certain position and contribute to raising customer demand.
10	Even though I understand I have to have a job, I am not attracted by any career prospects that I know.
11	I highly value promotion prospects in choosing an occupation.
12	What kind of job I can get is more important than whether I can get married or not.
13	I will do my best for the job I chose.
14	Welfare and working conditions are important factors in choosing an occupation.
15	I precisely evaluate my ability so that I have no problem in carrying out my duty.
16	Attending graduate courses is necessary to get better job in the future.
17	I have to make effort in finding solution to problems in carrying out my duty that I chose.
18	Job satisfaction is more important than how much I am paid.
19	Long-term employment is important
20	I keep trying to do what I believe right even when my colleagues disprove of it.
21	I can move to other provinces to get a job I want.
22	I will choose my job according to my life style and interest.
23	I would adjust myself to what others want.
24	I would choose a job that is suitable to my ability.
25	I fully understand and can describe professional duty of my job.
26	Preference and interest are important in choosing an occupation.
27	I keep trying to do what I believe right even when disappointed or frustrated.
28	Independency is important in deciding on a job.

족 내에서 순위, 간호학과 선택 동기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Q-진술 문들을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가장 긍정(동의)하는 진술문에서 부터 가장 부정(동의하지 않음)하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7점 척도 상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때 의견이 정상분포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강제분포(forced-normal distribution)를 하도록 하였다. 이때 양극에 놓인 진술문 (+3, -3) 6개를 채택한 이유를 각각 쓰도록 하였다.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자료의 처리는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동의하지 않은 문항(-3)을 1점으로 하여 2점(-2), 3점(-1), 중립 4점(0), 5점(+1), 6점(+2), 가장 동의하는 문항(+3)에 7점으로 점수화하여 코딩 후 컴퓨터에 입력시켰다. 자료의 분석은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Q요인 분석은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위해 Eigenvalue 1.0이

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된 유형을 선택하였다.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Z-score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직업 가치관은 4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유형은 참여자가 직업 가치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비슷한 의견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기 때문에 각 유형은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게 된다.

Q-유형의 형성

전체 연구대상자 30명 가운데 제 1유형에 속한 사람은 10명, 제2유형은 11명, 제 3유형은 3명, 제 4유형은 6명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 수록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 혹은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그 유

<Table 2> Factor weight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s (N=30)

Type	ID	Factor weights	Age	Religion	Grade	Military duty	Family	Reason for Application
1 (N=10)	27	1.5399	22	Protestant	3	Completed	Eldest	Profession
	20	1.3740	22	Buddhist	2	Completed	Eldest	Favorable employment
	26	1.2079	24	Buddhist	3	Completed	Second (eldest)	Advice of family
	25	1.1120	27	Protestant	2	Completed	Second	Possibilities
	9	.9270	22	Buddhist	2	Completed	Fourth	Possibilities
	18	.9075	19	None	1	Incompletion	Eldest	Possibilities
	21	.6835	27	None	3	Completed	Fourth	Possibilities
	29	.5551	24	None	3	Completed	Eldest	Favorable employment
	23	.5413	20	Buddhist	3	Incompletion	Second	Aptitude
	16	.3142	19	None	1	Incompletion	Second (eldest)	Favorable employment
2 (N=11)	6	2.0441	21	Buddhist	2	Completed	Eldest	Th spirit of service
	12	1.7016	18	None	1	Incompletion	Third	Aptitude
	8	1.4384	22	None	2	Completed	Eldest	The spirit of service
	28	1.1820	27	Buddhist	3	Completed	Second	Aptitude
	4	1.1010	22	None	2	Completed	Second (eldest)	The spirit of service
	10	.9471	19	None	1	Incompletion	Eldest	Possibilities
	30	.8826	24	None	3	Completed	Second (eldest)	The spirit of service
	14	.7027	19	None	1	Incompletion	Second (eldest)	Favorable employment
	19	.6344	24	None	1	Completed	Eldest	Favorable employment
	3	.5730	22	None	2	Completed	Second	Possibilities
3 (N=3)	5	.4241	22	None	2	Completed	Second	Possibilities
	22	1.2137	28	Protestant	3	Completed	Fourth	Possibilities
	15	1.1507	18	None	1	Incompletion	Second (eldest)	The spirit of service
4 (N=6)	7	.8937	22	Buddhist	2	Completed	Eldest	The spirit of service
	2	.9187	21	None	2	Completed	Second (eldest)	Favorable employment
	24	.8087	29	None	3	Completed	Second	Possibilities
	11	.7145	26	None	1	Completed	Third	Possibilities
	1	.7051	21	None	2	Completed	Second	Possibilities
	13	.5109	19	Buddhist	1	Incompletion	Eldest	Favorable employment
17	.3281	23	None	1	Completed	Eldest	Profession	

형을 대표한다. 인자가중치가 1.0이상인 사람이 제 1유형에 4명, 제 2유형에 5명, 제 3유형에 2명이 속해 있었다<Table 2>.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와 변량을 분석한 결과 4개 유형은 Q 표본을 분석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전체 변량도는 50.84%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 1유형이 32.62%, 제2유형이 7.59%, 제3유형이 5.70%, 제4유형은 4.93%였다 <Table 3>.

<Table 3> Eigen value,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N=30)

	Type1	Type2	Type3	Type4
Eigenvalues	9.7851	2.2780	1.7090	1.4795
Variance(%)	.3262	.0759	.0570	.0493
Cumulative	.3262	.4021	.4591	.5084

또한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제 1유형과 제 2유형의 상관계수는 .598이며,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426, 제 1유형과 제 4유형은 .549,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423, 제 2유형과 제 4유형은 .373, 제 3유형과 제 4유형은 .330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types (N=30)

	Type 1	Type2	Type3	Type4
Type1	1.000			
Type2	.598	1.000		
Type3	.426	.423	1.000	
Type4	.549	.373	.330	1.00

직업 가치관의 특성

각 유형이 자신에게 가장 해당 또는 가장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택한 진술문 중 유형별 표준점수(Z-score)가 ±1.00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유형별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 1유형: 보수지향형

제 1유형은 보수가 많은 직장이면서 일을 통해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보수가 많은 직장을 택한다.’, ‘직업은 장래성이 있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 ‘내가 선택한 직업이므로 어려움이 닥치면 대처할 방법을 모색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직업 선택은 독립성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나의 행동을 동료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맞출 것이다.’, ‘나는 평생 간호사로서 직장 생활을 지속할 것이다.’, ‘일은 솔직히 하기 싫고 책임을 지는 것도 싫다.’ ‘나는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로 분야에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등의 순이었다<Table 5>.

제 1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경제적 안정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 “돈도 벌고,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직장인만큼 나의 일에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며, 평생직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보수와 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직장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유형의 특성은 높은 보수가 보장되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일 자체에도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형으로 보수와 일의 만족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 또한, 간호과 선택도 타 직업에 비해 비교적 보수가 높기 때문에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적인 조건이 충족됨으로서 직업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1 (N=10)

	Q-Statement	Z-Score
4	I prefer a well-paid job.	1.74
2	Career prospects are important.	1.46
13	I would stand any unfair practice in job allocation and promotion to retain my job.	1.43
18	Job satisfaction is more important than how much I am paid.	1.32
17	I have to make effort in finding solution to problems in carrying out my duty that I chose.	1.22
28	Independency is important in deciding on a job.	-1.08
20	I keep trying to do what I believe right even when my colleagues disprove of it.	-1.17
23	I would adjust myself to what others want.	-1.22
8	I would devote a lifetime to my job.	-1.31
6	Honestly, I don't want to work nor take responsibility.	-1.56
10	Even though I understand I have to have a job, I am not attracted by any career prospects that I know.	-2.1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 1유형은 만족스러운 보수는 경제적 안정감과 동시에 일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 1유형을 ‘보수 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제 2유형: 가치 지향형

제 2유형은 직업 선택 시에 무엇보다 적성과 흥미, 자신의 생활 방식에 가치를 두었다.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직업 선택하는데 있어 적성과 흥미에 가치를 둔다.’, ‘내가 선택한 직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조차도 나의 신념과 일에 맞추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의 직업은 생활방식, 나의 흥미에 맞게 선택할 것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적절한 책임이 주어지면 신명이 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부서 배치, 인사고과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자신의 투입과 산출이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 비율이 같을 때 공정하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승진에 가치를 둔다.’, ‘일은 솔직히 하기 싫고 책임을 지는 것도 싫다.’, ‘나는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로 분야에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등의 순이었다<Table 6>.

제 2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일은 나의 적성에 맞아야 한다. 특히 간호학과는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파하는 사람들만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유형의 특성은 평생을 함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직장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다고 하였다. 직업의 선택시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보으나 승진보다는 자신의 적성, 가치관, 신념, 생활 방식이라고 하였다.

제 2유형은 직업의 선택을 적성, 흥미, 생활방식에 둔다는

점에서 ‘가치 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제 3유형: 안정성 지향형

제 3유형은 한번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는 평생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나는 평생 간호사로서 직장 생활을 지속할 것이다.’, ‘내가 선택한 직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다.’, ‘직장 내 일원으로서 회사에서 지위를 얻고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 ‘나의 직업에 대한 직업적 의무나 직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기술한다.’, ‘장기 근무 직업에 가치를 둔다.’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직업 선택하는데 있어 사회적 인지도에 가치를 둔다.’, ‘나는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로 분야에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맞출 것이다.’, ‘일은 솔직히 하기 싫고 책임을 지는 것도 싫다.’ 등의 순이었다<Table 7>.

제 3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인 대부분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한번 선택한 직장은 퇴직할 때까지 다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고 장래성도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 유형의 특성은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단순히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하기보다는 직장의 일원으로서 직장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고객의 서비스 요구나, 직무에 대한 열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제 3유형은 평생직장으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안정성 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제 4유형: 자율 지향형

제 4유형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에 따른 보수, 승진의 기회, 장래성에 초점을 두었다. 제 4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

<Table 6> Descending array of z-score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2 (N=11)

	Q-Statement	Z-Score
26	Preference and interest are important in choosing an occupation.	2.00
13	Welfare and work I will do my best for the job I chose.	1.42
27	I keep trying to do what I believe right even when disappointed or frustrated.	1.19
22	I will choose my job according to my life style and interest.	1.08
1	I am self-disciplined and creative. Given proper responsibility, I can enjoy what I do.	1.05
5	I would stand any unfair practice in job allocation and promotion to retain my job.	-1.00
3	My input/output ratio should be same as that of others; otherwise it is unfair.	-1.01
11	I highly value promotion prospects in choosing an occupation.	-1.41
6	Honestly, I don't want to work nor take responsibility.	-1.75
10	Even though I understand I have to have a job, I am not attracted by any career prospects that I know.	-1.95

<표 7> Descending array of z-score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3

(N=3)

	Q-Statement	Z-Score
8	I would devote a lifetime to my job.	1.87
13	Welfare and work I will do my best for the job I chose.	1.80
9	As a member of an organization, I want to secure a certain position and contribute to raising customer demand.	1.37
25	I fully understand and can describe professional duty of my job.	1.30
2	Career prospects are important.	1.10
19	Long-term employment is important	1.06
7	I am conscious of social status of an occupation.	-1.44
10	Even though I understand I have to have a job, I am not attracted by any career prospects that I know.	-1.56
23	I would adjust myself to what others want.	-1.80
6	Honestly, I don't want to work nor take responsibility.	-2.05

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적절한 책임이 주어지면 신명이 난다.’, ‘보수가 좋은 직장을 택한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승진에 가치를 둔다.’,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지방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직업은 장래성이 있어야 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직업 선택은 독립성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나는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로 분야에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부서 배치, 인사고과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일은 솔직히 하기 싫고 책임을 지는 것도 싫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맞출 것이다.’ 등의 순이었다<Table 7>.

제 4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강한 통제 하에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고, 그에 따른 보수와 승진의 기회들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 유형은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직장이라면 어디든 가는 반면 불이익을 당했을 때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는 유형이다.

제 4유형은 자신의 의지가 강해 타인과 쉽게 적응하기는 힘든 유형이지만,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적절하게 책임감이 주어지면서 보수와 승진의 기회가 있다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 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논 의

남자 간호대학생의 직업 가치관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각각의 유형은 보수지향형, 가치 지향형, 안정성 지향형 그리고 자율 지향형으로 범주화되었다

제 1유형인 보수 지향형은 전문적인 직무와 그에 합당한 보수가 보장되는 일을 찾는 유형이다. 만족스러운 보수라는 외재적 조건이 보장과 내재적인 조건인 보람 성취 관리 두 가지 모두를 충족되어지기를 원하면서도 외재적인 조건의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경우 내재적인 요인에 대한 만족감도 함께 높아진다. 이는 김경선(2006)의 노인케어에 대한 대학생의 직업가치관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대우 부담이 큰 업무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직업이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부정보이는 ‘대우 중시형’의 특징과 유사하다. 그러나 적당한 보수와 근무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며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언제든 직장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하여 보수와 근무조건이 안정성보다 우선하였다.

좋은 조건의 직장을 얻는 것은 선호하지만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윤숙과 김본한(2004)의 간호대학 4학년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연구에서의 조건최고형과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지고 싶

<Table 8> Descending array of z-score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4

(N=6)

	Q-Statement	Z-Score
1	I am self-disciplined and creative. Given proper responsibility, I can enjoy what I do.	1.97
4	I prefer a well-paid job.	1.72
11	I highly value promotion prospects in choosing an occupation.	1.59
21	I can move to other provinces to get a job I want.	1.59
2	Career prospects are important.	1.26
28	Independency is important in deciding on a job.	-1.10
10	Even though I understand I have to have a job, I am not attracted by any career prospects that I know.	-1.13
5	I would stand any unfair practice in job allocation and promotion to retain my job.	-1.43
6	Honestly, I don't want to work nor take responsibility.	-1.49
23	I would adjust myself to what others want.	-1.58

다'는 보수를 포함한 근무조건과 함께 전문직으로서의 성취에 대한 가치를 동등히 고려하며 직업의 외적인 가치와 내적인 가치가 동시에 갖추어지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보람과 성취, 자율성, 적성, 흥미 등 내재적 가치요인이 세 가지 유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남자 간호학생의 간호 분야의 직업적 가치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소명의식에 대하여 강한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 2유형인 가치 지향형은 직업의 선택을 적성, 흥미, 생활 방식에 둔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제 2유형은 직업 선택 시에 무엇보다 적성과 흥미, 자신의 생활 방식에 가치를 두며, 직업 선택하는데 있어 적성과 흥미에 가치에 맞추어 선택한 직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조차도 나의 신념과 일에 맞추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하였다. 간호 철학에 대한 공감은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간호학과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동기로서(Bughn, 2001), 간호학과를 지원한 남학생들은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화라는 이점 이외에도 타인에게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직장에서 느낄 수 없는 정서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간호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Mason, 1991; 이동재, 2004).

이는 오진환과 이인수(2005)의 연구에서 성격에 맞는 활동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중시한 자아 성취형과 적성흥미의 고려를 중시하는 적성 고려형을 혼합한 유형과 김윤숙과 김분한(2004)의 연구에서 적성과 흥미를 중시하고 자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직업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긍정을 보인 유형, 김경선(2006)의 자아 성취형과 일치하고 있다.

제 3유형인 안정성 지향형은 한 번 들어간 직장은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여 장기적인 성취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제 3유형에 속하는 한번 선택한 직장은 퇴직할 때까지 다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고 장래성도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량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으로 힘들며 사회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중요 기준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오진환과 이인수(2005)에서 평생직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김윤숙과 김분한의 연구(2004)에서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건 최고형으로 좋은 조건으로 직장을 얻는 것을 선호하지만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동향으로 간호직의 직업

적 안정성과 전문화에 따른 파워를 추구하려는 전통적인 남성관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학생들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또 다른 동기는 간호 직이 가지는 권력 사회적 지위와 욕구 그리고 졸업 후 보장되는 취업에 대한 욕구이다. 취업이 쉽고 안정된 직업을 갖기 원하던 중 자신들이 성이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학생의 경우 간호학과를 도전해 볼만한 잠재성 있는 학과로 여기게 되어 남성들이 직업적으로 간호 분야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Boughn, 2001).

제 4유형인 자율 지향형은 자신의 의지가 강해 타인과 쉽게 적응하기는 힘든 유형이지만,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적절하게 책임감이 주어지면서 보수와 승진의 기회가 있다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4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강한 통제 하에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고, 그에 따른 보수와 승진의 기회들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제 4유형인 자율 지향형은 자신의 의지가 강해 타인과 쉽게 적응하기는 힘든 유형이지만,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적절하게 책임감이 주어지면서 보수와 승진의 기회가 있다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화된 간호영역과 신체적인 힘이 요구되는 정신과나 마취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남성적인 특성이 장점이 되는 간호영역에서 특히 여학생과의 경쟁에서 성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van, 1997).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기 원하는 남자 간호학생들의 증가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간호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간호 영역의 요구에 편승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다(Sullivan, 2002). 전문성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이것은 곧 성공적인 인생을 의미한다는데 강한 긍정을 갖는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직업 가치관에 대한 외재적 가치와 만족과 내재적 만족과의 조화에 대한 건전한 직업의식형성과 더불어 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중요하다. 간호 대학생이 생각하는 직업가치관과 직업의식 정립, 직업적 성취, 직업윤리를 확립을 위해 진로지도도를 위한 정규 교과과정의 편성과 직업가치관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직업 가치관의 주관적 구조를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성격 유형은 각 개인의 내면

의 것들이 반영된 것이므로 성격유형의 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Q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 선정은 진주시 소재 일개 전문대학교 남자 간호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업 가치관은 문헌고찰(Kim & Kim, 2005)을 통해 얻은 28개의 문항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Q-진술문들을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강제 분포(forced-normal distribution)를 한 후 PC용 Quani Program 으로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직업 가치관은 4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제 1유형인 보수 지향형은 높은 보수와 일의 만족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유형으로 높은 보수에 대한 만족감이 일에 대한 보람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유형이다. 제 2유형인 가치 지향형은 직업의 선택을 적성, 흥미, 생활방식에 두는 유형이다. 제 3유형인 안정성 지향형은 한 번 들어간 직장은 나의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는 안정적인 장기간 생활에 가치를 두는 유형이다. 제 4유형인 자율 지향형은 자신의 의지가 강해 타인과 쉽게 적응 힘든 유형이지만,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적절하게 책임감이 주어지면서 보수와 승진의 기회가 있다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남자 간호학생의 직업가치관의 주관적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올바른 직업의식 정립, 직업적 성취, 직업윤리를 확립하도록 하며, 정규교과과정의 편성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상담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도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경선 (2006). 노인케어에 대한 대학생의 직업가치관 유형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32, 357-378.

김윤숙, 김분한 (2004). 간호대학 4학년의 직업가치관, *주관성 연구*, 9, 159-175.

김윤숙, 김분한 (2005).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주관성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5(4), 680-685.

손행미, 고문희, 김춘미, 문진하, 이명선 (2003). 남자 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33(1), 17-25.

오진환, 이인수 (2005). 일부 응급구조과 3학년의 직업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 논문지*, 9(1), 133-141.

이동재 (2004).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적체감, 성고정 관념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서울.

이재형 (1996). *남자고등학생들의 간호직업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정섭, 김남정, 두현정, 안지연, 이윤경 (2005). 남자 간호학생의 학과 적응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4(2), 159-169.

조경자, 이현숙 (2004). 유아교사가 되려는 남자대학생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1), 187-214.

최선주 (2002). *여성주류 사회주의 남자간호대학생의 생활체험*,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Auster, D. (1979). Sex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nursing education. *J Nursing Edu*, 18(6), 19-28.

Avery, C. T. (2001). *A conversation with luther: The opinion and predictions of Dr. Luther Christman* [Motion picture]. (Available from the American Assembly for Men in Nursing, 111 Cornell Road, Latham, NY12110.

Boughn, S. (2001). Why woman and men choose nursing, *Nursing Times*, 73, 13-116.

Burt, K. (1998). Male nurses still face bia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98(9), 64-65.

Goomez, A. (1994). Men in nursing a historical perspective. *nurse Educator*, 19(5), 13-14.

Haywood, M. (1994). Male order. *Nursing Times*, 90(20), 52.

MacDougall, G. (1997). Caring a masculine perspective. *J Adv Nur*, 25(4), 809-813.

Mackintosh, C. (1997). A historical study of men in nursing. *J Adv Nur*, 26, 232-236.

Mason, P. (1991). Jobs for the boys. *Nursing times*, 87(7), 35-37.

Minnigerode, F. A., Kayser-Jones, J. S., & Garcia, G. (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nursing. *Nurs Res*, 27(5), 299-302.

Poter-O'Grady, T. (1995). Reverse discrimination in nursing leadership: Hitting the concrete ceiling.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19(2), 56-62.

Schoenmarker, A., & Radosevich, D. M. (1976). Men nursing students: How they perceive their situation. *Nursing Outlook*, 24(5), 298-302.

Simpkin, W. (1998). Gender bashing. *Nursing Times*, 94(49), 32-37.

Sullivan, E. J. (2000). Men in nursing: The importance of gender diversity. *J Professional Nursing*, 16, 253-254.

Sullivan, E. J. (2002). The importance of gender diversit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6(5), 253-254.

Sweet, S. J. (1995). The nurse doctor relationship: a selective literature review. *J Adv Nurs*, 22, 165-170.

Turnipseed, L. A. (1986). Female patients and male nursing students. *JOGNN, July/ August*, 345-348.

Williams, C. A., & Bednash, G. (2001). The unfolding in nursing shortage and AACN's strategy. *Contents Syllabus*, 27(2). Retrieved January 2004, from <http://www.aacn.nche.edu/Publication/Syllabus/marchapro.1/memo.htm>

Williams, C. L. (1995). Hidden advantages for men in Nursing. *Nurs admin Q*, 19(2), 63-70.

Study on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Subjectivity in Their Attitude toward Jobs

Doo, Hyun-Jung¹⁾ · Kim, Yoon-Sook²⁾

1)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2) QI Team,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male college nursing students' personality-based career attitudes. **Method:** The Q-methodology was used to identify factors in male nursing students' personality-based career attitudes. A Q sample was collected from literature reviews (Kim & Kim, 2005). The subjects consisted of 30 male nursing students. **Resul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male nursing student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The five factors extracted all had eigen values greater than 1.0 and explained approximately 50.84% of the variation in responses (32.62, 7.59, 5.70 and 4.93% respectively). The categories were labeled 'Repair intention style', 'Belief intention style', 'Stability intention style', and 'Self-regulation intention style'. **Conclusion:** Through a process that analyzes subjective structure, male nursing students' personality based career attitudes create occupational consciousness, professional accomplishment and professional ethics as a nursing profession. Content of curriculum and development of a reasonable and realistic course consultation program should be done.

Key words : Job attitude, Male, Nursing stude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Doo, Hyun Jung

114-303 Juyak Hyundae APT, 360 Juyak-dong, JinJu, Kyungsangnam-do 660-771, S Korea
Tel: 82-10-9916-9315 E-mail: hjdoo77@hotmail.com